질 병 으 로 부 터 자 유 로 운 세 상 을 여 는 질 병 관 리 본 부

2010년 5월호

질병관리본부

News Letter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만들기

질병관리본부 연구협력을 위한 협정서 체결

질병관리본부는 충북 청원군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이전에 즈음하여 충청권 지역 대학교 및 병원과의 연구협력 및 인력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병원 및 을지대학교와 학술연구 교류 협정(MOU)을 체결하였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인간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 연구 기반·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질병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28일 충북대학교(총장 임동철) 및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임승운)과 학술·연구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어 5월 12일에는 을지대학교(총장 박준영)와 학술·연구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MOU 협력분야는 학술·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교육훈련, 조사사업부터 임상연구를 포함한 보건·의과학연구,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연구협력**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성질환, 감염질환 등 질병연구, 보건·의과학 연구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서 학술교류, 교육훈련 및 연구협력을 수행하기로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CDC, NIH, 중국CDC 등 11개 국외기관과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2월에 한미 국립보건원 공동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유전체 및 희귀질환분야에서 공동연구 추진 및 한국 보건의료 연구자들이 미국CDC 및 NIH에서 연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프로그램(VSTA) 추진에 합의하는 등 질병관리·예방 및 치료연구 선진화에 필요한 성과를 얻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대한의사협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27개 국내 학회 및 연구기관과도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연구 및 보건과 의과학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목 차 Contents

http://www.cdc.go.kr



01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만들기
질병관리본부 연구협력을 위한 협정서 체결



02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05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Ⅱ
일일 세계 전염병 모니터링회의



06 만성병 조사·감시도
질병관리본부의 일입니다 Ⅰ
TV 및 라디오 공익광고,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전략(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의 구성요



08 만성병 조사·감시도
질병관리본부의 일입니다 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사업, '엔터테인먼트'를 입다



09 국내 행사 Ⅰ
2010 지역사회 예방접종 캠페인
"예방접종으로 어린이가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10 국내 행사 Ⅱ
"제4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



11 News focus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로타바이러스 지역표준실험실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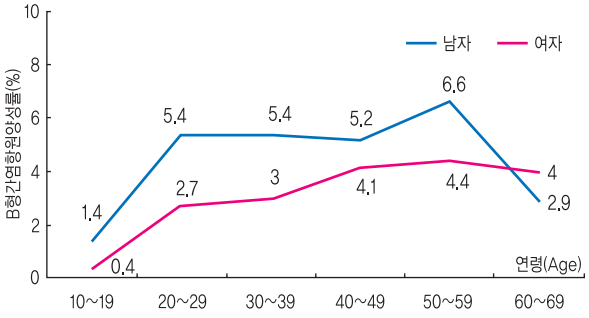
12 Photo news
2010년도 질병관리본부 상반기 헌혈행사 실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I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배경

간염은 바이러스, 알코올, 유전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간세포가 파괴된 상태고, 이중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B형간염은 인구 100명중 5명, 산모 100명중 3~4명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2005년에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10세이상 인구의 B형간염 항원양성률은 남자 4.8%, 여자 3.0%로 전체 인구의 3.7%이다.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성인의 약 90%는 합병증 없이 완전 회복되나, 주산기에 감염된 신생아는 대부분 증상이 없는 불현성 감염을 앓은 후 90% 이상에서 만성 보유자가 되며, 성인이 된 40~50대에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으로 이행된다.

B형간염은 기침, 재채기, 껴안기 등의 일상적인 활동으로는 전염되지 않고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감염된다. 즉, 수혈(혈액 및 혈액제제), 산모에서 신생아로의 수직감염, 오염된 주사바늘이나 침, 장기이식 등으로 전염되며, 이 중 수직감염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감염경로이다.

B형간염의 주요 감염경로가 되는 임산부의 B형간염 항원양성률은 1995년 3.4%, 2006년 3.2% 정도를 보이고 있다. B형간염 HBsAg 양성 산모의 출생아중 65~93%가 감염되고 감염자의 90%가 만성화되지만, 출생아에게 B형간염 백신을 단독 접종하는 경우 75~80% 정도 예방되고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동시 접종하는 경우 95%까지 예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생아 B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모로부터의 수직감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정부에서는 B형간염 산모를 관리하고 신생아의 B형간염 예방접종비 및 면역글로불린, 항원항체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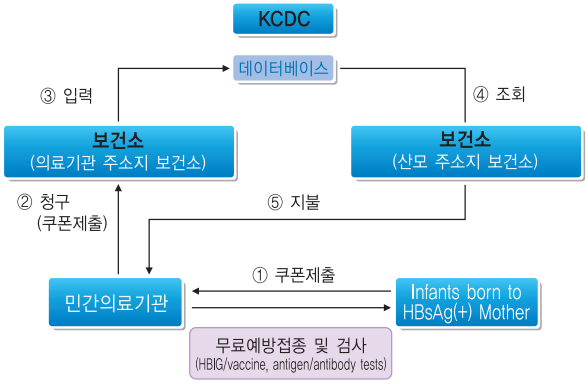
일본, 대만 등 B형간염의 유병률이 높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80년대부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B형간염 HBsAg 양성률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2년 7월부터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사업내용

B형간염을 퇴치하기 위해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에 의한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1999년 B형간염 예방접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이 있었고, 이에 정부와 의료계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공동 합의하였다. 2002년 7월부터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 및 B형간염 항원 · 항체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의료기관은 산전 B형간염 항원 양성자로 확인된 산모가 출산을 한 후 아기에게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접종쿠폰과 산모의 항원검사결과지를 보건소로 송부하면, 관할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B형간염 산모는 산부인과나 보건소에서 쿠폰이 들어있는 수첩을 배부 받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분만 의료기관에서는 산모에게 출산 전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실시하고, B형간염 표면항원양성 산모의 신생아에 대해 면역글로불린 및 1차 B형간염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의료기관에서는 생후 1개월, 생후 6개월에 각각 2·3차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항체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원·항체검사 실시를 시행하고 있다.

추진실적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홈페이지(http://ir.cdc.go.kr)를 통해 대상자관리 및 접종비 지급관리 등의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B형간염 발생 및 예방접종률을 모니터링하고, 분기별 예방접종소식지를 통해 시·도별 예방접종등록현황 및 적기접종률, 비용 청구 및 지급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수록하고, 사업에 대한 공지사항 및 최신지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 분	수직감염 노출 신생아수	신규 등록자수	등록률(%)
2002년 (7-12)	7,857	5,113	65%
2003년	16,678	14,900	89%
2004년	16,074	15,592	97%
2005년	14,791	14,491	98%
2006년	15,237	15,064	99%
2007년	16,768	16,546	99%
2008년	15,840	15,390	97%
2009년	15,137	14,559	96%

※ B형간염 수직감염 위험에 노출된 신생아 추정수
= 출생아수 × 0.034(산모 B형간염 표면항원양성률)

* 출생아수는 통계청 자료 적용한 통계임

2008년 9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로부터 서태평양 지역 최초로 'B형간염관리 성과인증서'를 받았다. 그해 11월에는 WHO와 질병관리본부 공동주최로 B형간염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B형간염 관련 국제협력과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B형간염 수직감염 사이트를 2009년 3월부터 시작한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비용상환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개편하였으며, 보건소 담당자 대상 온라인매뉴얼 CD를 제작 및 배포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시도 및 보건소의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질을 확보하고 국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B형간염의 특성 및 최신지견, 예방접종실시기준 및 방법과 이상반응 관리,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사업시행기준 및 시스템 사용방법 등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위탁 탄자니아 모자보건(10월) 및 WHO Fellowship 베트남(12월) 연수생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향후 추진계획

B형간염은 세계인구의 약 30%가 감염된 적이 있고, 현재 약 3억5천만 명의 환자가 만성 B형간염을 앓고 있으며 이중 적어도 50만 명은 해마다 간암이나 간경화로 사망하고 있는 중대한 건강문제가 되는 질병이다. 우리나라도 B형간염이 주요한 건강문제 중의 하나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적기에 예방조치를 하면 수직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간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B형간염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B형간염 수직감염 대상자의 지속적인 등록관리와 예방조치 이후 항원양성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항원양성률을 1% 미만으로 유지하고,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Ⅱ

일일 세계 전염병 모니터링회의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외 전염병발생현황을 언론 및 웹사이트 일일모니터링과 전염병감시체계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염병 및 해외 유입전염병 예측하고 있다. 전염병대응센터와 질병예방센터, 감염병센터, 면역병리센터의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매일 오전 9시부터 신속하게 진행되는 일일 모니터링 회의 결과는 해당 관련과에 환류하고 있다.

지난해 신종 플루 발생 이전부터 실시해 왔던 일일 모니터링 회의는 빠른 정보 입수를 위하여 매일 해외 전문 웹사이트 모니터링과 논문 검토를 통한 해외 전염병 발생현황을 체크하고, 주간 단위로 전염병 표본감시 결과와 전국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고한 전국 전염병 발생현황을 파악하여 전염병 발생 초기 상황관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황의 중증도에 따라 자문회의를 열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전략적 대응 계획을 세우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거나 대표 홈페이지에 대국민 캠페인을 알리는 등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선순환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한 대응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대국민 홍보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보도의 방향성을 선정하는데 모니터링 회의 결과를 실제적으로 반영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은 향후 해외 유입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구입의 의사결정에 기초 분석 자료가 될 것이며 예방관리지침과 예방접종 사업 및 관련 법 정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성병 조사·감시도 질병관리본부의 일입니다 I

TV 및 라디오 공익광고,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전략(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의 구심점

최근 3년간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등 알레르기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검증된 방법으로 해당 질환을 예방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관련 전문 학회 및 협회와 공동으로 알레르기질환의 예방관리수칙을 알리는 'TV 및 라디오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지난 5월 1일 송출을 시작하였다.

알레르기질환 TV공익광고는 '08년 '천식은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 없다'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09년에는 '3개 질환의 예방관리수칙'을 전달하는 형태로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의 공통 예방관리수칙으로 '실내 환경 관리'를 집중 부각하되, 아토피피부염편의 경우 '보습 관리' 메시지를 추가하였다. 또 단순한 멜로디를 반복함으로 광고 상기력을 높이는 후크송 전략을 구사하여, 예방관리수칙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질환별 3종 광고(천식편, 아토피피부염편, 알레르기비염편)의 차별화 방안으로 각각 Green, Red, Blue를 메인컬러로 사용하는 컬러마케팅을 지난해와 같이 유지하였고, 해당 질환의 전문의가 출연하여 예방관리수칙을 권고하는 형태로 제작하여 대국민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였다.

3종의 TV공익광고는 해당 질환의 기념주간에 맞춰 KBS, MBC, SBS 등 지상파TV와 KBS드라마, MBC드라마, SBS드라마 등 케이블 TV를 통해 집중 송출될 예정이다. 천식편은 5월 4일 천식의 날에 맞춰 5월 1일~14일 동안 송출되고, 아토피피부염편은 피부건강 주간(5월 둘째주)에 맞춰 5월 4일~20일 동안 송출되었다. 알레르기비염편은 귀의 날(9월 9일)을 맞아 9월 1일~14일에 송출될 예정이다.

라디오공익광고는 학·협회 대표가 성우로 참여하여 예방관리수칙을 국민에게 권고하는 형태로 제작되었고, TV공익광고와 같은 기간에 송출하여 매체간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미 제작된 알레르기질환 TV공익광고는 중앙정부 송출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 시·도 및 보건소가 해당 지역매체를 활용하여 재송출함으로 대국민 노출을 확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TV 및 라디오광고가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전략(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고, 알레르기질환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올바른 예방관리방법 인지와 건강행위 실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고 전반부



광고 후반부

천식편	아토피피부염편	알레르기비염편
		
		
		
		

만성병 조사·감시도 질병관리본부의 일입니다 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사업, '엔터테인먼트'를 입다

지난 4월 화성시동탄보건지소(경기도)와 금산군보건소(충청남도)에서 교육문화연극이 진행되었고, 각각 193명, 243명이 관람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또 올해 처음 도입된 건강마당극은 남원시(전라북도) 춘향제 행사와 연계되어 1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 문을 활짝 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수단이 인쇄매체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고자, 연극과 마당극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행사와 연계하여 공연을 지원하고 있다. 연극과 마당극을 통해 기존의 인쇄물을 통한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교육에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가미하여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방법을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다.

남원시보건소는 "건강마당극은 풍류와 해학을 곁들인 공연으로 기존 인쇄물을 통한 교육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교육문화연극('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은 직장생활에 지쳐 건강을 등한시 하던 중년의 가장이 동료의 죽음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행복을 찾아간다는 내용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건강마당극('신비의 영약을 찾아라!')은 바다 속 왕국의 백성들이 심뇌혈관질환으로 하나둘씩 쓰러지자, 건강부 장관인 별주부는 영약을 구하라는 명을 받고 육지로 모험을 떠나나 영약을 쉽게 찾지 못한다. 갖은 고생 끝에 건강 마을 촌장을 만나 심뇌혈관질환의 영약은 다름 아닌 운동, 금연, 절주 등 생활습관개선임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본부는 '07년 교육문화연극 대본을 개발하여 '08년(13회), '09년(6회)에 총 19회 지역행사에 공연을 지원하여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10년에는 야외공연인 건강마당극을 처음 도입하였고, 올 한해 동안 마당극은 10개 보건소, 교육문화연극은 9개 보건소에 공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문화연극과 건강마당극 공연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다양한 홍보수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홍보 사업의 역량 강화를 꾀하고자 한다. 또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민과의 교감을 형성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건강행위 실천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국내 행사 I

2010 지역사회 예방접종 캠페인 "예방접종으로 어린이가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서는 '예방 가능한 전염병의 퇴치'를 목표로 어린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매년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이 캠페인은 2010년 슬로건을 *"건강한 내일을 여는 소중한 가치! 예방접종 바로알기"*로 정하고 '전염병 예방 수칙', '예방접종 비용지원 사업' 안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등을 주제로 전국 곳곳을 누비며 알찬 정보제공에 바쁜 봄날을 보내고 있다.

지역사회 현장 캠페인을 통해 알찬 예방접종 정보와 추억을 선물



지난 4월부터 전국 곳곳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예방접종 캠페인'은 예방접종 등 건강증진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부스'와 예방접종 정보가 담겨있는 소책자와 경품 그리고 어린이대상 인형극을 한대 묶어 지원하는 홍보사업으로 올해는 63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총 77회 개최될 예정에 있다.

금년도 캠페인의 주요 주제는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사업' 등 국가 예방접종 사업 안내와 '보호자가 알아야 할 안전한 예방접종' 그리고 '예방접종 등록의 중요성' 등이며 아울러, B형간염 보균자들에 대한 차별 인식을 가지지 말자는 내용도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지역사회 예방접종 캠페인'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예방접종 사업을 전국 곳곳의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계기가 되어 좋은 정책홍보 채널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문제 등으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기 어려웠던 홍보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담당자의 부담은 줄고 홍보효과는 높일 수 있어 매년 봄 신청이 줄을 잇는 인기 홍보사업 중의 하나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평소 예방접종에 관해 시민들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보건소 예방접종 담당 간호사가 직접 상담에 나서고,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예방접종 비용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소책자가 배포된다.

또한 캠페인에 참여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예방접종 캐릭터 '예랑이, 예별이'와 함께하는 기념촬영도 있고, "튼튼이의 모험"이라는 인형극 관람도 준비되어있다. 인형극에서는 예방주사가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나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라는 내용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보호자들께 아동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궁극적인 취지라 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고 있노라면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과 예방사업을 개발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웃음을 지켜주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국내 행사 Ⅱ

"제4회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

5월 4일은 전 세계적으로 천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리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GINA(Global Initiative for Asthma)에서 매년 5월 첫째 주 화요일로 지정한 「세계 천식의 날」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 천식의 날」을 맞아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와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0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의 사업관계자와 분야 전문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사업담당자, 학교 보건교사 및 유치원 보육교사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이 생활환경 및 소아 면역체계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 · 청소년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2007~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천식 의사진단유병률이 2005년 2.3%에서 2007~2008년에는 3.0%로 약 1.3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6~11세에서 약 7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유병률은 1~5세 사이에서 19.2%로 나타나 5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금번 심포지엄의 주제를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아토피 · 천식의 올바른 관리방안'**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김유영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장은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 ·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알레르기질환의 예방관리수칙을 중점으로 제작한 '2010년 TV 공익광고'와 천식환자를 위한 '흡입기사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 시연이 있었고, 유치원(보육시설 포함)과 학교에서의 환경관리, 천식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 교내에서의 아토피 · 천식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가 강의가 이어졌다. 또한 지역 예방관리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수보건소 사례 소개도 있었다.

이밖에 천식을 앓고 있는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주제로 한 「**우리는 하나**」라는 교육문화연극공연이 있었다. 이날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아토피 · 천식에 대한 교육홍보자료 Kit(소책자 7종, 동영상 CD 2종)가 무료로 배포되었다.

한편 「세계 천식의 날」 기념일에 앞서 5월 2일에는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와 천식알레르기예방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바이로메드가 공식 후원하는 「세계 천식의 날 기념 걷기대회」가 개최되었다. **"Steps for the future, 맑은 공기, 맑은물, 힘찬 걸음, 밝은미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천식 홍보대사 이왕표를 비롯하여 여러 관련 학회 회원과 천식환자 및 가족이 모두 참여하여 천식을 극복한 경험담을 나누면서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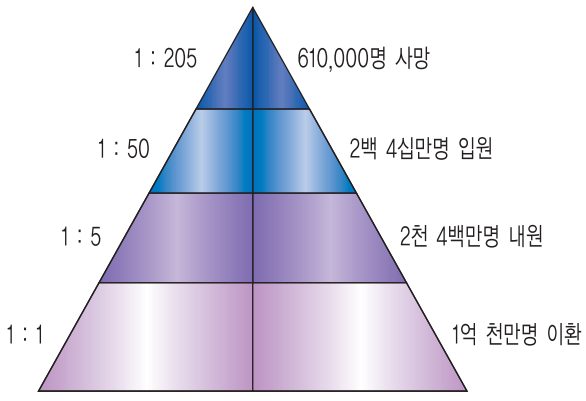


News focus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로타바이러스 지역표준실험실 지정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4월 12일자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로타바이러스 지역표준실험실로 지정되었다. 앞으로는 몽고, 라오스 등 서태평양지역 국가에서 유행하는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유행양상을 분석과 관련국에 대한 기술자문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로타바이러스는 급성위장관염을 유발하는 주요 병원체로써 특히 **영유아 설사의 주된 원인**으로 **전체 감염성 설사환자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1천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여 이 중 약 610,0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매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약 2억 6천 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간접 경비를 포함하면 약 10억 달러 정도의 사회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ID 2006; 12: 304, Lancet 2006; 368: 323

〈전세계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발생현황〉

최근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신규도입과 관련하여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진단과 **신변종**의 **로타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감시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 국가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의 관리대책 수립 및 질병 퇴치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차원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로타바이러스 지역표준실험실 추가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9년 12월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하여 로타바이러스 진단실험실 운영상황을 평가하였고 2010년 4월 12일자로 호주에 이어 질병관리본부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로타바이러스 지역표준실험실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1999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국가차원의 급성장염 원인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사업을 통해 축적한 로타바이러스 진단 및 분자생물학적 분석능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여 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의미가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 2월 일본뇌염 지역표준실험실 지정에 이어 두 번째로 서태평양지역 로타바이러스 지역표준실험실로 지정됨으로써 서태평양지역 국가 표준실험실에 대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지원, 진단시약개발 및 보급, 진단법 정도관리 지원, 네트워크 실험실간 협력연구 등의 방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국가적 위상 제고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향후 몽고,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국가들로부터 의뢰되는 검체에 대한 유전자형 분석을 통하여 **서태평양지역에서 유행하는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유행양상을 파악**하는 이외에 관련국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 및 교육**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부터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로타바이러스 유전자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유전자형의 로타바이러스 발생을 조기에 감시할 수 있는 **로타바이러스 실시간 유전자형분석망**을 운영할 예정이다.

Photo news

2010년도 질병관리본부 상반기 헌혈행사 실시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질병관리본부 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5월 19일(수) 상반기 헌혈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 사랑의 헌혈행사」는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포함)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친환경상품진흥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직원과 일반인의 참여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다.

특히 2009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혈액 보유량이 크게 감소하자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헌혈릴레이가 추진되었고, 국내 혈액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도 헌혈 릴레이 행사에 동참하고자 전 직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두 홍보와 헌혈행사를 추진하여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건강한 헌혈자 모집을 통한 혈액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본인 확인 절차(공무원증, 사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록헌혈증 등 신분증 지참)와 전혈 헌혈 시 연령 기준(만16세 이상~만70세 미만, 단 만65세 이상은 만60세부터 만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어야함), 체중 기준(여자 45kg 이상, 남자 50kg 이상인 경우), 헌혈 가능 기간(최근 전혈 헌혈에 참여한 경우 2개월 후 같은 날짜, 성분헌혈은 2주 후 같은 요일) 등 **건강진단 기준**과 전염병, 약물, 예방접종, 주사제, 과거 시술 및 수술, 국내 · 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vCJD 관련 헌혈금지지역 등의 **헌혈자 문진 기준**을 헌혈일 이전에 공지하여 헌혈 참여자들이 숙지하도록 하였다.

헌혈자들에게는 헌혈증서와 헌혈자 기념품이 제공되었고, 공무원인 경우 보건복지부 상시학습 1시간이 인정되었다. 올해 하반기 헌혈행사는 11월에 예정되어 있다.



발 행 일 : 2010. 5월 (통권 제30호)
발 행 인 : 이종구
편집위원 : 권준욱, 박미정
발 행 처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우) 122-701
전 화 : 02-380-2631~5 팩 스 : 02-354-2723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ISSN 1976-7579
05
9 771976 757908